

TV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5:50 그때 그 사람(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갈데까지 가보자(재)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0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채널A 아침뉴스	25 신년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혜>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00 신년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장신구(재) 55 튜튼 생활채널(재)	50 지구촌 뉴스		25 SBS 뉴스 45 일일드라마 <할 키운 딸 하나>(재)
11 50 도큐 드라마(씨인)(재)	00 우리말 겨우기(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15 사랑의 가족(재) 45 세계는 지금(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우지개>(재)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직인작실 1~2부	00 KBS 뉴스12	4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MBC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재)	00 SBS 12 뉴스 30 테마스페셜(재) 30 한국의 맛(재)
1 00 직인작실 1~2부	00 한국재발견(재) 50 뉴턴의 사과나무(재)			
2 00 강연 100℃(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비밀구멍 취업론 핵심역량으로 뛰어라>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재)
3 00 뉴스토크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재) 55 TV 유지원(재)	00 MBC 경제 뉴스 10 보물 속 원정대 40 헬로 키즈 아하 역사탐험대	10 SBS 이슈인 사이드
4 10 박종진의 뉴스쇼 페도난마 1~2부	00 넷트워킹 특선 <필통> 55 튜튼 생활채널(재)	25 코파반장의 동화수시대 55 비타린(재)	30 뇌게이비아 놀자 스페셜	00 최강 탑플레이트 30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오그레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05 KBC저녁뉴스 15 내마음의 크레파스
6 10 채널A 뉴스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정보통	20 도전 발명왕	05 영상포럼 한국 100경
7 20 관촬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떠따부따 20 일일드라마 <할 키운 딸 하나>
8 30 부부극장 공작(재)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정보통 플러스 55 어머니가 있는 풍경 <마미도>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결투의 배란다쇼	
10 00 신년특집 웰컴 투 시월드	00 신년대기획 <부곡의 조건 제2편> 50 2014 신년기획 <글로벌 리더의 선택 제2편 -UN의 여성파워 강경화>	00 수목드라마 <예쁜남자>	00 수목미니시리즈 <미스코리아>	00 드라마스페셜 <별에서 온 그대>
11 00 이영동-신동엽 전블랜(재)	30 KBS 뉴스라인	10 해피 투게더	20 글로벌 홀스데이 집으로	15 자기가
12 20 이영동-신동엽 전블랜(재)	30 인문강단 락(樂)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24	35 나이트 라인

EBS

06:10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5:00 피터팬	19:30 TV로 보는 원작 동화
07:00 곤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연순의 대대손 뿌리깊은 음식 -가지구이와 갯잎구이>	15:30 바두와 친구들	20:00 EBS 뉴스
07:15 마이애의 모험	11:20 세계대기획	15:45 똑똑박사 에디	20:20 직원의 세계 일인자 <16세기 피겨아티스트 이찬우>
07:3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정오 뉴스 <문학>	16:00 댕댕댕 유치원(재)	20:30 세계대기획 <세계여행 김용 총재가 말하는 글로벌 인재의 조건>
07:45 로보카 폴리	13:05 지식채널e	16:20 아기 고릴라 동동	21:30 한국기행
08:00 댕댕댕 유치원 <문학>	13: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16:30 코코몽2	21:50 신년특집 <세계와 중국 그리고 21세기>
08:20 풍선 코끼리 발루부	13: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16:45 모모야재	22:45 극한집집 <말뚝장 1부>
08:35 방구대장 뽕뽕이	13:50 겨울방학생활 6학년	17:00 풍선 코끼리 발루부	23:15 신년특집 <세계와 중국 그리고 21세기>
08:50 모야모야	14:10 천하무적 한자 900	17:45 로보카 폴리	24:05 지식채널e(재)
09:05 코코몽2	14: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8:00 두디다콩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09:20 생활의 비법 <김상선 집합의 모든 것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조보연 교수>	14:30 온스타일 수확나라	18:15 곤	
10:00 한국기행		18:30 생방송 보너하니	

EBS플러스1

00: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	10:50 2014 수능개념 <영어 중급>
01:40 수능 길잡이 <독사>	11:40 2014 고등 예비과정 <국어>(재)
02:30 <수학 I>	12:30 박복의 이슬로 만나는 경제 <수학 II>(재)
03:20 <미적분과 통계기본>	13:00 2014 고등 예비과정 <영어>(재)
04:10 <수학 I>	14:00 <영어>(재)
05:00 <영어 독해 구문편>	15: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구문편>(재)
05:50 <영어 독해 유형편>	16:00 2014 수능 개념 <수학 I B형>
06:4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2>	17:00 <적분과 통계>
07:30 <Basic Grammar>	19:00 <문학>(재)
08:20 2014 고등 예비과정 <국어>	20:00 <미적분과 통계기본>(재)
09:10 <수학 II>	21:00 <수학 I>(재)
10:00 <영어>	22:00 2014 수능개념 <영어 중급>(재)
	23: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유형편>(재)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과학실험-하와이	15:20 초등 2년 겨울방학생활
07:30 수학의 원리 마테미타	15:40 초등 4년 겨울방학생활
08:20 9급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6:00 초등 6년 겨울방학생활
08:30 다문화 한국어 <과학>	16:20 초등 개념잡기 <과학>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16:50 한자교육드라마 <어린이 손자병방>
09:10 중학예비과정 <과학 I>	17:20 역사 e 뉴스 <사해 I>
09:50 <과학 II>	17:45 인형극장 옛날옛날에 <과학 II>
10:30 <과학 II>	18:00 특목 직업이 살아보기 <역사 II>
11:10 중학 1학년 <사해 II>	19:00 극한집집 <역사 II>
11:50 중학예비과정 <사해 II>	19:20 원더풀 씨어런스(7)
12:30 <수학 II>	20:20 서경미술기행 <세계사>
13:10 <수학 II>	21:20 중학개념 끝장내기 <역사>
13:50 중학 개념 끝장내기 <한문>	22:00 중3 예비과정 <과학>
14:30 <역사>	22:40 <역사>(재)
15:10 스포츠랜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일(음 12월 2일 癸酉)

子	36년생 형국이 넓어지겠다. 48년생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응하자. 60년생 자연스럽게 내내려 두는 것이 가장 낫다. 72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야 좋다. 84년생 전혀 관계없으니 개의치 말라. 행운의 숫자 : 68, 06
丑	37년생 중요한 사람이 언급 되리라. 49년생 생경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 61년생 자신에게 재상이 되어 돌아 올 수 있는 일은 자초하지 말라. 73년생 신호가 오거든 즉시 반응하자. 85년생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21, 74
寅	38년생 기회를 잃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0년생 긴밀한 협조와 멤버십이 절실하다. 62년생 여차피 어긋나게 되어 있느니라. 74년생 방법과 기교까지 고려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9, 95
卯	39년생 활기차게 변신하는 운로이다. 51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 63년생 간접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75년생 한 동안 쉬었다가 다시 비슷한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39, 99
辰	40년생 꿈꿔 왔던 것이 이루어지겠다. 52년생 의무적인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느니라. 64년생 구분을 잘 해두어야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76년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84, 58
巳	41년생 수수하여야 할 입장에 서게 되리라. 53년생 많은 문제점들이 보인다. 65년생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될 사건이 발생 한다. 77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2, 85

午	42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느니라. 54년생 확신이 없다면 게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66년생 추진하던 일들에 차질이 생기지만 그 속에 해답도 있다. 78년생 경우를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행운의 숫자 : 14, 41
未	43년생 여건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좋다. 55년생 영예로움으로 인한 기쁨이 크다. 67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것이 보인다. 79년생 선제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입장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9, 15
申	44년생 한 가지만 해결되면 연쇄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56년생 선후를 정하지 않으면 실속 없이 분주해질 수 있다. 68년생 백지 한 장 차이다. 80년생 충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행운의 숫자 : 28, 49
酉	45년생 각오하고 있어야 놀라지 않을 것이다. 57년생 동무 따라 강남 갈수도 있느니라. 69년생 과정에 충실하면 결실을 맺는다. 81년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성사시키고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2, 29
戌	46년생 실리를 우선시 해야겠다. 58년생 너무 민감해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겠다. 70년생 의외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니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82년생 얼마나 치밀 하느냐의 차이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81
亥	47년생 불리한 조건이라도 수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59년생 좀 더 지켜볼 일이다. 71년생 서두르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83년생 고귀한 것이나 기회를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일라. 행운의 숫자 : 82, 9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내 안티는 나... 연기돌 쉽지 않더라구요”

씨스타 다솜, '사랑은 노래를 타고' 서 왈가닥 캔디 '공들임' 역

KBS 1TV 일일극 여주인공은 성공의 지름길로 여겨져 경쟁이 치열한 자리다. 씨스타에서 효린, 보라 등 언니들에 비해 존재감이 미비했던 막내 다솜(20·사진)이 이 자리를 꿰찰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다솜은 지난해 11월 첫 방송한 KBS 1TV 일일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연출 이덕건, 극본 홍영희)에서 천방지축 왈가닥이지만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며 씩씩하게 살아가는 캔디형 인물 '공들임'을 연기하고 있다.

방송이 된 지 두 달이 채 안 됐지만 평가는 꽤 고무적이다. 시청률이 27%까지 치솟은 가운데 다솜의 연기력도 '발군'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변호사 언니 공수인(황선희 분)과 친자매가 아닌라 출생의 비밀을 알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상대남인 박현우(백성현)와 티격태격 '밀당'(밀고 당기기)을 하며 '러브 라인'도 실감 나게 키워가고 있다.

덕분에 '변호사 동생', '텔런트'란 수식어도 붙었다. 연기 경력이라곤 지난해 KBS 2TV 시트콤 '패밀리'가 전부인걸 감안하면 이 또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캐스팅 소식이 알려진 후 주위에서 '대박이다', '정말 잘 됐다'는 축하를 받았을 때는 마냥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첫 촬영 날짜가 다가올수록 부담되고 겁이 났다. "부담 반, 실패 반이었다"며 "연기자의 꿈이 컸던 만큼 잘하고 싶은 욕심과 원가를 보여주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있었다. 인정받고 싶었다"고 웃었다.

"20년간 살면서 제 힘으로 평가를 가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확장 시절 시험 기간에 문제집도 안 봤는데 저 다 일어나 대본을 다시 볼 정도니까요."

극 중 공들임의 할머니인 배우 반효정은 첫 대본 리딩을 한 후 다솜에게 "연기 좀 하네, 준비 정말 많이 했나보다"고 칭찬했다. 공들임의 부모인 이정길과 김혜옥은 "너랑 하면 재미있겠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다.

다솜은 "다행인 건 국어, 영어 등의 과목을 좋아해 대사를 끝날 파악한다"며 "대사를 한 줄씩 암기하는 게 아니라 대본을 읽으면 장면이 하나의 그림으로 머리에 박힌다. 한번 죽 읽고 어떻게 전개되는지 파악한 후 디테일한 대사로 말해본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일일극 특유의 연기 특징을 살리는 건 녹록치 않았다. 이덕건 감독은 주시청층이 40~60대임을 고려해 명확한 대사 전달이 되도록 미리시리드보다 과장된 표정과 행동 연기를 주문했다.

"일일극은 주부들이 밤 먹거나 살거지 하며 편히 보는 드라마잖아요. 감독님이 TV를 바뀔 뻔해도 연기자가 뭘 하는지 표현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다소 큰 리액션을 필요로 해 초보 연기자로선 쉽지 않았죠."

10~20대 팬들의 함성 속에 살던 다솜을 알아보는 중장년층도 늘었다. 그는 "얼마 전 여의도에서 쌀밭집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변호사 동생 왔다'고 반겨줘요. 또 화장실에 갔는데 할머니 두 분이 절 꼭 안아주며 '영광'이라는 거예요. 기쁘다 못해 잔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솜은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내렸다. "나의 안티는 나 자신이다"며 직설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브라운관에서 제가 예쁜 구석 하나 없이 못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배우면 어느 정도는 예쁘고 빛나 보여야 하는데 너무 추해 보여서 처음엔 채널을 돌렸어요. 하하. 일부 네티즌은 '아이돌 때 예쁜 줄 알았는데 역시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주연하기엔 무리수'라고도 해요. 하지만 카메라에 적응하고 내공이 쌓이면 좀 나아지겠죠."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을 때부터 연기자에 대한 꿈이 있던 다솜은 사극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다. /연습뉴스

이승기 - 윤아, 새해 첫 커플 인증



“서로 알아가는 단계”

가수 겸 배우 이승기(26)와 소녀시대 윤아(23)가 열애 중이다. 1일 오전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이먼트 관계자는 "이승기 씨와 윤아 씨가 서로 호감을 갖고 좋은 만남을 갖고 있다.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으니 축하해달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분이 연예계 활

동을 해오면서 여러 장소에서 자주 마주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윤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현재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승기는 현재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에서 활약 중이며, 윤아는 KBS 2TV 일화극 '총리와 나'에 출연하고 있다. 최근 이승기는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상, 윤아는 'KBS 연기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연습뉴스



TV 하이라이트

국내 피겨 선구자 이찬우



직업의 세계-일인자(EBS·오후 8시20분) = '롤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적인 피겨 아티스트 이찬우.

피겨를 모던 피겨 마니아 중 한 명이었던 이찬우. 3D 애니메이션으로 영상 관련 일을 하다가 2004년 그 당시 이미 유명했던 피겨 아티스트 마이클 라우의 피겨를 보며 독학으로 피겨를 제작하기 시작한다. 국내에 피겨 제작 하위문화나 산레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3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치던 중 실상자가 2007년 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다. 그가 피겨 제작을 포기하려 했을 때 운명적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에서 협업 제의가 들어오며 세계가 주목하는 피겨 아티스트 반열에 오른다. 지금도 이찬우는 국내 피겨 분야의 선구자로서 각종 전시회와 강의를 계속 하고 있다.

발레 소녀의 우아한 몸짓



내 마음의 크레파스(SBS·오후 5시15분) = 전라북도 군산시. 이곳에 여는 여자아이들보다도 우아한 몸짓으로 발레를 하는 13살 소녀 미르가 있다. 어릴 적부터 발레 팬이었던 엄마를 따라 자연스럽게 발레를 접하게 된 미르.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던 발레가 이제는 꿈이 되어버렸다. 발레를 시작한 초창기, 각종 대회에 나가 상을 타면서 재능을 인정받았던 미르. 그 뒤에는 뛰고 또 뛰었던 노력이 있었다. 매일 3~4시간씩 이어지는 연습에도 새로운 발레 동작을 배울 수 있어 즐겁지만 하다. 얼마 남지 않은 공연을 앞두고 주말에도 연습을 하는 미르. 하지만 두 배로 많이진 연습량 탓에 몸 상태까지 나빠졌다. 끝내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는데 미르는 공연 모든 난관을 헤치고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

한겨울 저장 음식 맛보기



한국의 밥상(KBS1·오후 7시30분) = 강원도에서도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눈 속에 파묻힌 산촌, 설피마을. 끝이 깊어 벌이 들지 않아 밭농사마저 힘들었던 오지마을에서는 생계의 모든 것을 산에서 해결했다. 해발 700m에 위치하여 맑고 깨끗한 계곡물을 먹고 자란 토산물의 향취가 제법 좋다. 가을물이 흘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이 만든 저장고에 꼭꼭 숨겨둔 저장 음식을 만나본다.

엄동설한에 멧돼지마저 감히 쉽게 잡아먹었던 멧돼지 구이와 백태국은 겨울밤을 녹이는 뜨끈한 맛이다. 한계령을 넘어 인제에서 양양으로 내달리다 보면 오색마을에 당도한다. 송구멍을 만들어 심심한 무를 겨우내 가래 먹을 수 있는 무 저장고는 한계령 토박이 김삼너씨의 지혜가 숨어있다.